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 조롱하는 노래

(히박국 2:4 - 20)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조상을 숭배하므로 우상 숭배의 죄를 수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일의 기쁨과 민족적인 축복을 보류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히박국 선지자가 의인이 많은 유다 백성들이 어찌하여 악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간단하게 대답 하십니다.

### 1.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죽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5절).

선지자는 당시 바벨론의 행동원리를 술 취한 자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 취한 자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은 열락을 즐기는 방중한 백성이었습니다(15절).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거짓되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를 약탈하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하고 노략질하였습니다. 죽음은 죽음을 삼킵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술 취한 자 같고, 교만한 자이고,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6절).

바벨론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볼모 잡은 것, 다시 말해서 약소민족으로부터 빼앗은 조공으로 인하여 짐이 되는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었도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 이니라”(8절).

바벨론은 탐심과 잔인성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조상을 숭배하므로 우상 숭배의 죄를 수 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일의 기쁨과 민족적인 축복을 보류하시는지도 모릅니다.

### 1. 화 있을진저

#### (1) 축재하는 사람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6절).

축재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탐욕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재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탐욕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도, 우리도, 우리의 후손도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 (2) 불의한 사람

“제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9절).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그것으로 행복하게 살 줄 알지만 실상은 빼앗은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불안에 떨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문을 열고 잠을 자도 부자는 하루도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11절).

욕심을 따라 사는 불의한 사람에게 돌들이 양심을 돌으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 (3) 폭력을 행하는 사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12절)

죄로 돈을 벌고 피로 성읍을 건축한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폭력에는 피를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인권 폭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4) 타인에게 범죄케 하는 사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곧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잘못된 구조로 인하여 우리는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됩니다.

#### (5) 우상 숭배하는 사람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19절).

우상숭배는 무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반듯하게 믿는 사람은 결코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는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의 도전을 요구합니다.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20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가정 탐방 - 최종시장로 가정편

# 주님 주신 뜻대로 산다



14후퇴 당시 마침 평양에서 내려온 원로목사님이 초당동의 한 가옥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유교적 정서와 전통이 강했던 장로님의 고향은 복음화 되기 시작하였다. 백발이 성성한 목사님은 한지에 먹물로 쓴 찬송가 두루마리를 피난 보닛에 싸들고 오셨는데, 이제 겨우 여덟 살이었던 장로님을 비롯한 동네 꼬마들은 이 두루마리 찬송가를 벽에 매달아 놓고 배워 부르며 처음 예수님을 만났다.

6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조부 밑에서 자라신 장로님은 교회 출입을 불허하는 집안의 반대를 묵묵히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이어왔다. 주일날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농사일을 맡긴 할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이튿날 예배에도 참석하기 위해 달밤에 논밭으로 달려가 늦은 밤까지 일을 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신다. 그러나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지금의 부인이신 최길옥 권사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경기도 광주로 이사한 요즘은 교회의 새벽기도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졌지만, 부부의 새벽예배는 쉬어 본 적이 없다.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매일 한 장의 성경을 읽으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는 예배가 장로님 가정의 첫 일과이다.

미국에 유학 중인 장남 승순과 딸 미현, 주미는 고맙게도 이러한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늘 존경과 순종으로 부모님을 본받고자 한다. 특히 장녀 미현은 서울교회의 많은 신랑신부를 위하여 축가를 불러주었는데, 이 글을 읽는 여러 가정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대한 추억이 있으리라. 미현은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미는 핸드벨과이어를 섬기고 있고, 최길옥 권사님은 새가족부 교사 일을 감당하고 있다.

최종시 장로님은 교회 설립 당시를 떠올리며 공항에서 만났던 이중운 목사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셨는데, 삭발한 채 오직 목회를 위해 돌아오신 목사님과 재회하였을 때 가슴 뭉클했던 기억과 감격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생생하다고, 오늘의 서울교회가 있기까지 자신과 집안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교회로 달려와, 이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 일꾼들은 마치 성경 속의 초대교회처럼 뜨겁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설립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의 규모를 떠나 목회자 세미나와 집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감당하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에 뜨겁게 헌신하고 사랑한 서울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할 뿐이라고 최장로님은 말씀한다.

교회 설립과 더불어 장로님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가장 최적의 여건을 만들고, 성도들이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늘 고심하며 기도하는 예배위원으로 봉사해 오셨다. 과분한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뜻에 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벌써 십여 년 세월.

지난해 장로 안식년을 가지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진 것을 장로님에게는 귀한 재충전의 시간이었다. 이때 여러 교회와 부서들을 둘러보고 말씀도 마음껏 보며 많은 감명과 도전을 받으셨다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더욱 충만하여 가는 가운데, 더욱 말씀 속에 새로워지며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힘써 되시기를 장로님은 당부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불러주셨으며, 특히 새가족들을 오래 전 만났던 친구들처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하나가 될 때 교회와 나라와 민족, 자신 모두가 은혜 받고 축복받을 것임을 거듭 말씀하셨다.

<주님 주신 뜻대로 산다>는 장로님 가정의 가훈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내하고, 언제나 미완성이지만 부족한 모습을 늘 일신하며 한 걸음 걸어가는 최종시 장로님.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교회 구성요소를 돌보시며 분주하실 장로님께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소정(편집부)

디아스포라 박광일 전도사 인터뷰

## 북한 복음화를 위한 밀알이 되고자...



토요일인 지난 10일, 교회 주변 노방 전도를 마치고 만난 박광일 전도사의 첫 인상은 약간은 매서운

듯 하면서도 시종 미소가 입가에서 떠나지 않는 든든한 서른 살 청년의 모습이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새로 개설한 탈북자 선교 부서<디아스포라반>의 교역자로 부임한 박 전도사는 1월 첫째 주일인 지난 4일 9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개강 예배를 드렸다.

“말이 부족하고 준비가 잘 안됐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만큼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 전도사는 함흥에서 태어나 평양의 김형직 사범대학에서 서양사를 전공한 뒤 95년에 졸업하고 고향의 한 고등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다. 당시 북한은 기아문제로 매우 어렵던 시기였다. 교내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아사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였다.

박 전도사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은 지난 98년 10월, 북한 정보당국에서 시칭을 금하는 남한 방송을 봤다는 이유로 쫓기는 몸이 된 박 전도사는 그 길로 중국행 열차를 타고 탈북을 시도한다.

그러나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는 중국에 처음으로

간박 전도사는 이내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강제이송을 당해야 했다. 박 전도사는 비록 죽을지언정 북한으로 다시 끌려 갈 수 없다는 일념으로 고향으로 호송되던 열차에서 몸을 던져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다. 몸 여기저기를 크게 다친 상태로 탈출에 성공한 박 전도사는 꼬박 일주일의 고통을 겪은 직후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런 데 바로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국인 목사가 사경을 헤매고 있던 박 전도사를 발견하고 구해준 것이다. 그 뒤 여러 선교사들과 중국 내 한국 교회 사람들의 도움으로 공안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고 몸도 회복하고 이들의 전도로 복음도 받아들였다.

박 전도사는 하나님의 이 같은 보호에 한없이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2년여 간 설 새 없이 쫓기는 몸이다 보니 때로는 답답하고 허망한 생각도 들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박 전도사는 2000년 12월 중국 동북부의 어느 기도원에서 열흘간 금식 기도를 하다 일생일대에 있을 수 없는 사명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선 그 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북한 복음화를 위한 밀알이 되어야겠다는 소망이 마음에서 생겼습니다. 이 말씀이와 닿은 뒤로 저는 체계적인 신학 공부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를 위해서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박 전도사는 그 뒤 중국 북부에서 제3국 국경을 넘어 장장 4,500

여 킬로미터에 걸친 긴 여정을 거쳐 4개월여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이후 2002년 2월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박 전도사는 지난해 말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반 담당 교역자로 서울교회로 오게 됐다. “실질적으로 북한 선교 분야는 하나님의 때가 있

어야 합니다만, 언젠가 통일이 올 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4천여 명의 탈북형제자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약 40%정도를 차지하는 탈북자 출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를 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반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박 전도사는 탈북자 전도와 북한 복음화는 절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요청이었다.

박 전도사의 요청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간절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겠다.

김민철(편집부)





# 에바다부 농아 초청 큰 잔치 연다

## 1월31일(토) 오후 5시

에바다부(지도: 임규현 목사, 부장: 윤봉준 장로)는 창립 3주년을 맞아 오는 1월 31일(토), 오후 5시 수서, 일원 지역의 농아인을 초청하여 잔치를 연다.

초청 대상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으로 에바다부는 전

도를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에바다부는 이미 많은 농아들을 방문, 초청하였으며 혹 주변에 이번 행사에 전도하고 싶은 농아인을 알고 있는 분은 에바다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

#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 - 각부 수련회 · 성경학교가 열린다 -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오는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3일간 연동교회 수련원에서 열린다.

"Born Again"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이종운 목사와 고등부 지도 오정식 목사 두 분을 강사로 모신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모두가 바쁘다고 하는 고등학교 생활이지만 잠시 학원과 교과서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 예수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

도록 기도한다.

이번 겨울수련회 참가비는 10,000원이며 참가할 학생들은 성경찬송과 같이 입을 옷, 세면도구와 필기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면 된다. 출발은 29일(목) 오전 9시 교회에서 한다.

이번 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우리 교회 각부 교회학교 겨울 프로그램을 열린다.

2004년 교구위원회 이렇게 한다

# 성령 충만한 다락방! 부흥하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체이다. 다락방은 세포와 같은 것으로 세포(다락방)가 살아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다락방은 교회의 불씨이기 때문에 다락방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락방 모임은 예배가 아니라 모임이다. 그러므로 다락방 성경공부는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락방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①전체 소요시간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로 한다. 인도는 다락방장이 하며 사람을 금한다.
- ②다락방장은 직분 또는 성별의 구분 없이 세례 받은 자 원자로 하되 지도자 양성반(LTC)에서 훈련 10주간을 받은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임명한다.
- ③다락방장은 모든 행정과 다락방 관리를 책임지며 다락방 식구들의 신앙을 위해 성경공부와 기도로 꾸준히 노력한다.
- ④다락방 식구들의 심방을 책임지며 지도교역자에게 보고하여 협력을 얻는다.
- ⑤매주 모든 가정을 심방해야 하며 다락방 모임 시 운영을 책임진다.
- ⑥보고서는 매주 제출해야 하며 매주일 다락방 성경공부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⑦새 가족이 왔을 때 초청하여 다락방 가족들에게 소개하며 환영회를 갖는다.
- ⑧다락방장은 식구가 공 예배에 잘 출석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병든 자가 없는가,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자가 없는가, 이단 사설에 미혹된 자가 없는가, 실망하고 낙담한 자는 없는가, 사업의 실패로 실의에 빠진 가정과 가정불화는 없는가 등을 살핀다.
- ⑨심방자가 해야 할 일은 곤란한 입장이거나 사정을 이야기 하지 않으며 어른을 존경하고 어린이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상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⑩경조사에 적극 참석해야 한다.
- ⑪새가족 심방은 새 가족이 등록된 주간에 심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구 교역자가 책임을 지고 교구 지도목사의 계획 아래 실시하며 일반 심방보다 우선해서 실시해야 한다.
- ⑫다락방장은 특별 심방 사유발생시 교구 교역자에게 즉시 연락 하도록 한다.
- ⑬일제 심방은 가급적 일년에 일회 심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⑭심방 시 음식과 다과류는 아주 간소하게 준비되게 능하면 삼가 한다.
- ⑮연속 3회 이상 모임을 갖지 못하는 다락방을 유고 다락방으로 규정하고 다락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이웃 다락방과 연합이나 일꾼 교체를 검토 하여 위원회에 보고 한다.
- ⑯새가족의 다락방 참여는 등록된 새 가족들을 2~3주차에 간사들이 일차 접촉 하여 해당 다락방장을 5~6주차에 소개 시켜 수료 시에는 해당 다락방에 참여토록 하며 가능한 가족 다락방을 지향한다.

# 2004년 1월 성경통독자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성경통독 시상 받는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성경필사 1회>- 이미송 집사(13교구)
- <3독>- 정유선 집사(2교구)
- <2독>- 정옥자 집사(2교구) 김종자 권사(14교구)
- <1독>- 양춘경 집사(1교구) 이인숙 권사(1교구) 오충례 권사(2교구) 최홍렬 집사(2교구) 김유경 집사(3교구) 박정수 집사(6교구) 고영철 집사(8교구) 김영일 집사(8교구) 박정옥 권사(8교구) 김진숙 권사(9교구) 김현주 집사(9교구) 김희정 집사(11교구) 김정호 집사(12교구) 이순희 권사(13교구) 최은석 집사(13교구) 오가연 집사(13교구) 최성옥 집사(13교구) 임민선 집사(13교구) 한궁수 집사(13교구) 이상 23명

# 비전 2020 후원자 명단

강승웅(서경애) 강한중(김광혜) 김광신 김권집 김명숙 김복순 김세재 김원중 김은애 김인순 김지영 김춘호 김희옥 김희자 나미용 나연신 문주현 박우주 박정인 박종만 배영애 손명근 손성실 신동천 안경옥 양옥자 안성현(유인숙) 유명호 유명옥 유명복 유후자 윤봉준 윤운식 이정희 이관모 이광열 이남복 이덕빈 이동권 이동만 이명홍 이미연 이복규 이부자 이순녀 이운영 이점숙 이찬호 임상현 장외남 전주자 정용순 제오복 조동완 조철기 진 돈 채경희 최난수 최정숙 최종시 함연호 (다음주 계속)

# 고등부 아이노스의 밤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난 17일(토) 오후 5시, 고등부와 대학부 연합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을 시작으로 아이노스(altos)의 밤이 웨스트민스터 홀에 찾아들었다. 주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낸 '짝사랑'.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매년마다 열리는 아이노스의 밤은 고등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 개최하는 고등부 고유의 특색 있는 행사 중 하나. 특히 올해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열성적인 연습으로 내용이 훨씬 풍성해졌다면서 고등부 지도목사님(오정식)은 한껏 자랑하신다. 비록 일주일 남짓한 짧은 준비기간으로 이러한 성공적인 행사를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한 프로그램마다 20시간이 넘는 고된 연습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고 관객들 가운데에는 고등학생뿐 아니라 어른과 어린이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도 보였다.

본격적인 행사는 수화찬양, 풍트, Worship Dance, 시 낭송 등이 이어졌으며, CCD (Contemporary Christian

Dance)나 새롭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프로그램 사이사이 두 남매 진행자의 귀엽고 재치 있는 멘트에는 모두 웃음을 멈추지 못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짝사랑을 탄탄한 스토리와 세련된 연출로 심도 있게 그려낸 성극은 더욱 성숙해지는 고등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찬양의 가사와 성극의 대사가, 마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은혜와 감동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다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들을 향한 주님의 짝사랑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고...

오주명(편집부)



나의 하나님

#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박상훈(청년부)

할렐루야! 이번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여러 성도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수험생활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서울교회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대전에서 올라와 서울교회에 나오기부터 대학 생활, 군 생활, 그리고 신림동고시촌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의 격려가 있었기에 힘든 가운데에도 기

쁨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독서실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이것만큼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제 발걸음은 더욱 가볍고, 머리는 더욱 맑아졌지요? 물론 어렵고 힘들어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까운 교회를 놔두고 멀리 서울교회까지 온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한주일 내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기에 늘 서울교회에 오는 것은 저에게 최고의 기쁨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100%의 자기 노력과

100%의 하나님의 성취가 합하여 200%가 아닌 100%의 결실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100% 노력을 쏟고 하나님의 100% 성취를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감사한 마음을 갖자' 하는 각오로 저의 100%를 위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차 시험을 치르러 가는 날 그동안 저에게 늘 평안함을 주었던 여러 시편 말씀 중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라는 말씀으로 기도하였고, 시험장으로 가는 저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였습니다. 시험이 모두 끝난 후에도 저의 마음은 평안하였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 며칠 전 하나님께서 저를 더욱 연단하시고자 저의 희망과 다른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합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좇아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수험생활 내내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 원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섬기는데 사용하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이 넘치는 장로님, 믿음이 가득한 성도님, 다정다감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의 기도는 체게 너무 귀한 것이었고, 큰 위로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기 원하고,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주 안에서 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 엘리아남선교회 특강

-1월30일(금) 오후7시 웨스트민스터홀-

엘리아남선교회특강이 '북한체계의 현 상황과 미래의 북한 선교전략'을 주제로 열린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 동정

- 주간식당봉사: 안드레남선교회(25일) 베드로남선교회(2월1일)
- 금주의 식사: 하범수집사·양옥자집사 (자녀의 결혼을 마치고) 박찬성집사·심명숙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 HLKY 98.1 MHz(극동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a href="http://hosanna.tv">http://hosanna.tv</a> ■ 기독교 TV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 반갑습니다

#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 강진환, 양정실 집사가정 (13교구)



그 소감을 기고하기도 했었다.

현재 플랜트를 수입하여 국가 시설에 납품, 설치하는 (주)엘름을 2년 전 설립하고 경영하는 강진환 집사는 1년 반의 기다림 끝에 25:1의 경쟁을 뚫고 정부업체로 등록하기 까지 도우시고 준비하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하였노라고 고백한다.

모태신앙인 이들에게 새가족부 교육을 받는 감회는 남다르다. 초신자는 아니지만 이들은 새가족부에 참여하며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이 되어 자기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정립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한다. 특히 새가족부 교사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기도, 끈끈한 정은 그들을 날마다 감격케 하고 담당교사인 주영도 교사도 어쩌나 세심히 돌보는지 감사할 뿐이라고 한다.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행정과 여타의 프로그램 등 어떤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는 서울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이르기까지 그 역동적인 모습이 지상 교회의 모델인 듯 하여 강진환, 양정실 집사는 벌써부터 서울교회 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여인을 꿈꾸는 양정실 집사가 좋아하는 성경은 잠언 31장,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주 읽는 성경은 여호수아 1장과 시편 127, 128편이고 찬송은 210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애창한다.

강진환, 양정실 집사는 요즘 군선교사 파송예배를 통해 군대를 간 일선이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건강한 군 생활을 하기를, 또한 자신들은 서울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거듭나는 체험을 하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한다.

허 숙(편집부)

지난 해 12월 둘째 주에 등록을 하여 새가족부 5주차 교육을 받고 있는 강진환, 양정실 집사 가정을 함박눈이 내리는 주일, 8층 만나홀에서 만나보았다.

이 가정이 등록을 한지는 5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 전 부친에서 서울로 이사 와서 줄곧 서울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사를 오면서 신중하게 교회를 결정하려고 했고, 가까운 이유로 첫 번째 서울교회를 택하여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 중 잔잔한 가운데 느껴지는 영적인 힘에 매료되어 다른 교회는 둘러볼 틈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등록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들 일선이가 곧 군대를 가기 때문이었다. 주일저녁 찬양예배 때 가끔씩 군대가는 청년들이 비전 2020 운동본부에서 주관하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군선교사로서 파송 받는 모습을 보며 이들도 반드시 파송예배를 드리고 군대에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부친께서 목회를 하시는 양정실 집사는 자녀들로 4대째 신앙을, 강진환 집사는 모태신앙으로, 그러면서도 잠시의 쉼을 갖고자 등록을 하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관심 있게 지켜 보며 양 집사는 지난 가을 주부대학에 참여하며 순례자에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말은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영·육간 더 좋은 건강을 위하여
4. 나라의 안평과 번영을 위하여